

“간화선은 모든 근기를 아우르는 수행”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간화선 중흥 법회서 법문

이 시대를 대표하는 선지식들의 릴레이 법문을 들을 수 있는 법석이 펼쳐졌다. 조계종과 전국선원수좌회는 4월 24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간화선을 중흥을 위한 대법회의의 입재식을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원로의장 밀운 스님, 원로의원 성우 스님, 총무원장 자승 스님, 전국선원수좌회 공동대표 무여 스님을 비롯한 종단 주요 스님들과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갑윤 국회 정각화장 등 사부대중 2천

간화선에 대해 스님은 “모든 근기를 아우르는 수행법이자 일체의 다른 방편을 구하지 않고 바로 여래지에 이르는 경결문(徑截門)이라며 “눈 밝은 선지식을 만나 바르게만 지도받으며 한 생애 마칠 수 있는 참선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서구 지성인과 종교인들은 종교를 떠나 마음닦는 수행을 생활화하고 있다”며 “그들은 개개인의 수행이 인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런 의미



조계종과 전국선원수좌회는 4월 24일 간화선 중흥을 위한 대법회를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했다. 첫 법문은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이 나섰으며, 5월 2일까지 선지식들의 릴레이 법문이 이어진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개막 컷팅식을 가진 선서화전. 5월 2일까지 진행되며 수익금은 선원 수좌 스님들의 복지에 사용된다.

전국 선원 내 위빠사나 유포 안타까워... 바른 지도 필요 법회로 간화선 가치 알길

오는 5월 2일까지 조계사서 9명 선지식 법문 이어져 수좌 복지위한 선서화전도

여 명이 참석했다. 첫 선지식으로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이 증명 법사로 참여해 수승한 간화선의 가치를 설명했다. 이날 진제 스님은 입재법문을 통해 “역대의 모든 불조계서 심인법인 끊어지지 않도록 견성법을 지도했는데, 2500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의 선불장에서 재현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 “하지만 요즘 들어 선원 내 관법 수행(위빠사나)이 유포된다하니 안타까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에서 간화선은 21세기 인류의 밝은 미래를 이끌 수 있는 정신문화”라고 확인했다. “이제는 우리의 정신문화인 참선수행법을 세계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밝힌 진제 스님은 “이번 법회를 통해 올바른 간화선의 가치를 정립하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날 법회와 함께 선원 수좌 스님들의 복지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선서화전도 함께 개막했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나무갤러리와

로비에서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경봉 정담 서용 성철 월하 해암 탄허 월담 석주 월산 스님 등 한국 근현대 불교를 대표하는 선사들의 글씨와 그림 800여점이 전시된다. (본지 4월 10일자 20면 보도) 또한 ‘북전강 남향곡(北田南香谷)’으로 불리는 전강 스님과 향곡 스님의 선서화도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한편, 간화선 중흥을 위한 대법회는 5월 2일까지 봉행되며 석종사 금봉선원장 혜국 스님, 원로의원 월탄 스님, 오동선원 조실 대원 스님, 축사사 문수선원장 무여 스님,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 지리산 상무주암 현기 스님, 죽림정사 조실 도문 스님, 원로의원 고우 스님의 법문이 이어진다. 글=신종일 기자·사진=박재원 기자

“지금 당장 부처처럼 살자”

도법 스님, 유니온신학대 국제 컨퍼런스 강연서

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장 도법스님이 세계 종교인들에게 부처처럼 살아가길 강조했다.

도법 스님은 4월 19일 저녁 7시(미국 시각) 세계적 참여불교인과 해방신학자들 앞에서 화엄경의 본래부처론과 동체대비행에 바탕을 둔 생명평화 사상을 역설했다.

“나의 불교수행, 화엄세계관과 생명평화운동-지금 당장 부다로 살자, 부다로 행동하자”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도법 스님은 생명평화무늬를 소개하는 것으로 강연을 시작했다.

스님은 “온 우주의 유행무형의 모든 존재들이 서로 의지하고 협력하며 살도록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생명평화무늬”라면서 “모든 존재들이 나의 생명을 낳고 길러내는 거룩하고 신비한 모체”이므로 “당연히 지극 정성을 다하여 서로 잘 모시고 섬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법 스님은 모든 종교가 갈 길은 생명평화의 길이라고 강조하며 강의를 마무리했다. 스님은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인내와 관용과 비폭력 평화의 마음으로 온 우주의 모든 것들이 서로 의지하고 협력하며 함께 살아가는 생명평화무늬의



결사추진본부장 도법 스님이 4월 19일 유니온신학대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길”이라며 “생명평화의 삶, 생명평화의 세상은 모든 인류의 영원한 염원이며 21세기 시대정신이다. 우리 종교가 나서서 실현해야 할 21세기 절체절명의 화두는 바로 ‘지구촌 생명평화 공동체’라고 역설했다.

한편, 도법스님은 17일, 18일 진행된 각종 토론회에 참여했으며 19일 오후 2시에 연이어 동서양의 대화에 법문 스님, 슐라키바라사 등 세계적인 참여불교인들과 함께 토론 패널로 참여했다.

도법스님은 20일 폐회식에서 화엄경을 낭독했으며 올리히 두호르브(독일 하이델베르그대 교수), 폴 니터(미국 유니온신학대학원 교수) 등의 종교인들과 단독 대담을 가졌다. 신종일 기자

화성태안3지구 주민 화쟁위에 중재 요청

‘화성태안3지구 원주민 대책위’는 4월 22일 대한불교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 화쟁위원회(위원장 도법)에 중재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대책위는 탄원서에서 “정부와 불교계가 ‘화성태안3지구사’를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천성산이나 사패산보다 더 심각한 소모적 분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화쟁위원회 탄원 사유를 “화쟁위원회가 양 극단의 입장을 절충해 서로가 양보할 수 있는 대화의 접점을 찾아나가고, 갈등의 실상을 정확히 보고 양측 태도를 종합해 접근을 도출해 나가는 역할에 주목해 정부·용주사·원주민 간 갈등을 풀 수 있는 유일한 해결기관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화성태안3지구사’는 문화재 보호 등 명목으로 택지개발이 중단된 36만평을 둘러싸고 벌어진 정부·용주사·원주민간 분쟁이다. 신종일 기자

노동관련 문제, ‘도반’에서 해결하세요

조계종 노동위·불교상담개발원 4월 25일 상담소 현판식

종교계 최초 노동자를 위한 심리치유센터가 설립됐다. 조계종 노동위원회(위원장 종호)와 불교상담개발원(원장 도현)은 4월 25일 신도회관 사무실로 이전한 불교상담개발원에서 노동자 심리치유센터 ‘도반’ 개소식을 진행했다. 노동자심리치유센터 ‘도반’은 노사분규·비정규직 문제 등으로 고통받는 노동자의 마음을 달래줄 노동전문 상담소다. 노동위와 상담개발원은 도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상호협약을 체결해, 노동자와 정리해고자들에게 5월부터 본격적으로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노동위원회는 노동 현장에서 상담이 필요한 노동자를 발굴해 선정하고, 불교상담개발원은 노동위를 통해 연계된 노동자들



조계종 노동위원회와 상담개발원은 4월 25일 노동자 심리상담센터 ‘도반’을 개원했다.

의 심리검사, 개별상담, 집단상담 등을 진행한다. 노동전문 심리상담가인 박현진 참관담가속상담센터 상담사와 이경애 심리상담소장, 선업 스님을 중심으로 불교상담개발원 상담사들의 협력으로 운영된다. 종호 스님은 개소식에서 “산업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노동자가 2500여 명에 달하고, 비정규직·정리해고 문제와 노동·자

본의 불합리한 관계와 노동강도로 노동자들의 어깨가 무겁다”며 “도반을 통해 그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도반 개소식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 노동위원장 종호 스님, 사회부장 범광 스님, 상담개발원장 도현 스님, 양승훈 민주노동부위원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은 기자

안전행정부 공익사업 불교NGO 6곳 선정

더프라이스·위드아시아·마주협 등

안전행정부 주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 대상으로 불교 NGO단체 6곳이 선정됐다. 안전행정부는 4월5일 2013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 대상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공모는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1319개 단체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불교계 단체는 더프라이스, 위드아시아,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국제연꽃마을, 우리민족서로돕기, 파라마타청소년연합회 등 6곳이 선정됐다. 글로벌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분야로 이름을 올렸다.

더프라이스는 ‘미안마 지역 개발 활동가 한국 초청 교육 및 훈련’ 사업으로, 위드아시아는 ‘Dream나래’ 사업으로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다.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는 ‘나마스메 네팔 앤 코리아’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중국 조산속속학교 도서관 환경개선 및 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파라마타청소년연합회는 ‘의료진 파견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 국제연꽃마을은 ‘베트남 광남성 어린이집 건립사업’으로 지원을 받게 됐다. 신종일 기자

‘조계종 포교원’ 사칭 주의보

조계종 포교원을 사칭한 범당을 개설해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식품을 판매한 일당이 검거돼 불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4월 23일 조계종 포교원을 사칭한 범당을 차려놓고 천도재를 지내주겠다며 돈을 받은 뒤 물품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건강식품 등을 판매한 혐의로 A(60) 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전과 6범인 A씨는 서울 불광동에 ‘삼불사 포교원, 대한불교 조계종’이라는 이름

으로 범당을 설치한 뒤 지난달 5일부터 최근까지 노인들을 대상으로 불교의식을 대가로 10만~300만원을 받은 뒤 보석매트와 건강식품을 선물로 주는 형식으로 물품을 판매해 8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와 관련해 조계종은 “해당 사례는 ‘대한불교조계종’이라는 종단 명의를 무분별하게 이용한 대표적 사례”라며 “가짜 범당에 대한 불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신종일 기자



사찰 불사의 최고 도우미

남녀노소 누구나 운전가능

산악 전용 다목적 차량 어게이트 (뜻: 일개미)

사찰의 모든 불사는 어게이트에 맡겨주세요. 제설, 분무, 과수재배, 운송, 비료살포, 방제, 트레일러 기능 등

어게이트 작업 범위	어게이트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무기(물주기, 나무 / 과실수 방제) - 제설 블레이드 (평지 및 산악지형 눈치우기) - 염화칼슘 / 비료 살포기 - 리프트(적재할 상하동작 최대 180~200cm) 연동작업 등 상단작업 가능 - 에어 블로워(적설량 0~15cm 제설가능) 특허출원중 - 트레일러 운반 작업기(600kg 적재) 기본적재함(500kg) - 덩크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OHLER(콜러) AEGIS EFI 가솔린엔진 - 안마 디젤엔진 - H일체형 프레임 - 8"서스펜션 - 변속레버 - 방향지시등 - 3' 초강력 스틸 프레임 - 전방 디퍼런스 - 라디에이터 - 후방 디퍼런스 - 유압브레이크 - 4WD 스위치

EVENT!!

특전 : 선착순 50대 특별할인판매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본 사 : 경기 이천시 신둔면 경충대로 3073(소정리 19-5) | 대표전화 031)637-7020 | 팩스 031)367-7030
 서비스공장 : 경기 이천시 신둔면 원적로 512번길 233-10(도봉리 546-1)